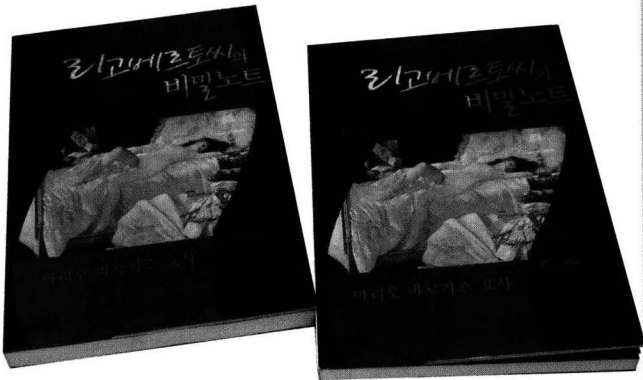


페루 소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리고베르토 씨의 비밀노트》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글_이주연 기자



《리고베르토 씨의 비밀노트》(전2권)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지음 | 김현철 옮김 | 새물결
1권 256쪽, 2권 200쪽 | 값 1권 7,500원, 2권 6,900원

이 난감하고, 집요한 그리고 고혹적이며, 비밀스러운 소설을 어쩌면 좋을까. 매 장마다 등장하는 에곤 실레의 그림들, 도색 잡지를 훑쳐보는 느낌을 주는 외설스러운 묘사, 양아들과의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과편화된 대화, 도대체 즐거리를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서사 구조, 소설 속의 이야기와 전혀 관계없이 중간 중간 삽입된 작가의 다양한 주장(스포츠 정신이 갖는 문화적 의미, 작가 자신이 로타리클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도시화에 대한 작가의 견해) 등은 그야말로 '비밀노트' 에나 쓸 수 있는 '잡스러

운' 이야기다. 난감함을 넘어 난삽할 정도다.

'그러나' 읽기를 멈출 수 없다. 아니,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현대 스페인어권 문학을 대표하는 페루의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이 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섹스와 관능에 대한 직설적 미학과 에곤 실레다.

자신이 에곤 실레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폰치토는 리고베르토의 어린 아들로, 천사 같은 외모와 능구렁이가 울고 갈 내면을 지녔다. 리고베르토의 아내이자 폰치토의 새엄마 루크레시아는 이 어린 의붓아들과의 '육체 접촉' 때문에 리고베르토와 헤어진 상태다.

소설의 한 축은 폰치토가 학교 수업을 빼먹고 루크레시아를 찾아와 에곤 실레의 삶과 작품에 대해 얘기하며 아버지와의 재결합을 종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리고베르토가 루크레시아를 주인공으로 해서 자신을 비롯한 '오겏'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외설 소설로 써내려가는 것이다. 물론 이 정도 즐거리도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1권이 끝날 때까지도 리고베르토를 화자로 하는 외설 소설 부분은 실제인지 허구인지 헷갈렸으니까.

책에는 에곤 실레의 그림 25컷과 클립트, 앙리 등의 그림이 실려 있다. 요사가 이 미술품들을 통해 인간의 성적 욕망을 묘사하는 부분들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집요하고 침착하다. 그가 보여주는 인간의 쾌락과 관능은 소설을 다 읽어야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육체적 실제와 상상 사이에 위태롭게 자리한 그의 소설은 에곤 실레의 그림이 그러하듯 염세적인 퇴폐와 관능을 도발한다.

책을 읽다보면 먼저 에곤 실레의 노골적이고 뼈뚫한 시선에 사로잡힌다.

'이 시선으로 네 욕망을 본 적 있어? 왜 인정하지 않지?'

다음은 요사의 냉소적인 시선과 마주해야 한다.

'이래도 따라올 수 있어? 감히 상상할 수 있어?'

요사는 결코 독자와 같이 호흡하는 작가가 아니다.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인다. '나의 독자라면 무조건 내 방식을 따르라' 다. 《세상 종말 전쟁》도 그랬고, 《나는 홀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도 그랬다. 그가 보여주는 소설 미학은 극단적이고, 직설적이며 동시에 과시적이다. 독자에게는 다만 '복종'과 '경배'가 있을 뿐이다.

그의 문학은 우리가 한때 논했던 외설과 예술의 경계 시비에서 '외설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 그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외설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그것을 문학적 상상으로 발전시켜 작품에 녹여내는 일은 오직 뛰어난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요사의 작품은 바로 그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마치 〈자화상〉에서 에곤 실레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듯이.

그렇다고 불만은 없다. 다만 책을 읽다보면 그가 한때 페루의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적이 있고, 최근에는 72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극에 출연하기도 한 '유쾌한 현실인'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뿐. **